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11. 7.(금)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업무담당자	임상현	☎ 760-725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농업인이 함께 키우는 ‘제주DA’ 현장 확산 시동

- 11월 6일 미래농업육성관에서 제주DA파트너스 1차 원탁회의 개최 -
- 현장 의견 반영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디지털 혁신 실현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은 지난 6일 농업디지털센터 주관으로 파트너스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농업육성관에서 ‘제주DA 파트너스 1차 원탁회의’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최근 배포된 ‘제주DA 앱 개선 버전’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, 사용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농업디지털센터는 지난 9월 제주DA 파트너스를 구성한 이후 2개월간 현장 농업인으로부터 앱 사용 시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해 왔다. 이를 토대로 지난 3일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핵심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앱을 전면 개편했다.

○ 1차 업데이트 내용은 △글자크기 조절 기능 도입으로 가독성 개선 △청년농업인 영농연계 강화를 위한 경영체 구성원 이용 권한 확대 △서비스 대상 작물 확대(2개 → 7개)* △회원가입 절차 간소화(2단계 → 1단계)*다.

* 서비스 대상 작물: 감귤, 당근 → 기존+월동무, 양파, 브로콜리, 양배추, 마늘

* 가입 절차 간소화: 본인인증 + 본인 필지 입력(매칭) → 본인인증

○ 이번 개선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했던 기

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.

- 원탁회의에서는 ▲개편된 앱 실사용 테스트 ▲파트너스 의견 공유 ▲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.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개선된 앱을 사용하며 편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고,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.
- 제주DA앱 테스트는 실제 농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섯가지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.
 - 영농비서 기능은 재배 시기별 맞춤 알림을 통해 농작업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, 영농이력 기능에서는 출하량, 경영분석, 토양검정 및 당산도 검사 결과 등 주요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.
 - 농업ON 기능은 최신 영농뉴스와 보조금·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인공지능(AI) 도우미 기능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자료를 기반으로 농업인의 질문에 즉시 답변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.
 - 마지막 영농일지 기능은 음성 입력과 사진 첨부, 위치 기반 일지 작성 안내를 지원해 편의성을 높였다.
- 회의에서 수집된 의견은 기능과 주제별로 분류해 사용 빈도와 활용도를 기준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, 차기 업데이트 과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.
 - 개선내역과 반영 일정은 12월부터 앱 공지와 안내자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, 변경된 기능의 활용 예시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.
-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이번 원탁회의는 11월에 배포된 앱 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, 이듬해 업데이트에 반

영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”라며 “농업인의 기록과 의견을 정책 및 관측 데이터와 연계해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- 한편, 농업기술원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작물별·권역별 2·3차 원탁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, 이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종합해 개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현장 의견 수렴 → 개선사항 반영 → 결과 공유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립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.